



정혜엘리사벳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http://www.sackcc.net>

주임신부: 김원현 베드로 916-207-4806
 본당부제: 김상돈 도미닉 916-580-8519
 사목회장: 김규철 레 오 952-836-7117
 연령회장: 최중구 안토니오 916-747-8431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 Sacramento, CA 95826
 사무실 : 916-368-9204

오늘의 말씀 | 제1독서 | 이사야서 58:7-10 | 제2독서 | 코린토1서 2:1-5 | 복음 | 마테오 5:13-16

◎말씀 “기도와 묵상”

‘당신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당신은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빛과 소금은 그런 것입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꼭 있어야 하는 소중한 역할을 빛과 소금이 합니다. 당신도 세상에서 그런 사람입니다. 꼭 필요한 소중한 사람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불특정 다수의 모든 타자를 두고 말 하나요? 아니면 너, 나의 자녀, 그리스도인을 말 하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타인들, 다른 이들을 비추는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아, 예수님께서서는 다른 이들과 그리스도인들을 구분합니다.

‘그리스도인, 당신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안 된다. 등불은 켜서 함지 속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놓는다.’ 예수님께서서는 소금의 짠맛을 잃지 말고, 등불의 밝은 빛으로 다른 이들을 비추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도록 하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세상에서 해야 하는 역할입니다. 소금의 짠맛을, 등불의 밝은 빛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짠맛과 빛이 원천은 하나님입니다.’

혹시 내가 짠맛을 낼 수 있다면, 어떤 이가 빛을 비추어 주변을 밝힌다면, 그 짠맛과 빛의 원천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는 도구입니다. 나의 소금 역할과 나의 빛 역할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소금의 짠맛과 하나님에게서 오는 빛의 밝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며, 하나님께 청하고, 하나님에게서 모든 힘을 받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묵상해야 한다.’

하나님에게서 짠맛을 받고, 하나님에게서 빛을 받으려면 끊임없이 기도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의 짠맛을 청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빛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소금의 짠맛을 잃고, 우리가 묵상하지 않으면 빛은 밝음을 잃게 됩니다.

걱정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과 멀어져 소금의 짠맛과 빛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일 자	전 려 력	미사시간	우리들의 정성(지난주)	
2월7일(화)	연중 제5주간 화요일	저녁7시30분	주일헌금 교 무 금	\$ 1,266.00 \$ 3,860.00
2월8일(수)	연중 제5주간 수요일	오전8시	성소후원 자 선 비	\$ 95.00 \$ 75.00
2월9일(목)	연중 제5주간 목요일	저녁7시30분		
2월10일(금)	성녀 스콜라스티카 동정 기념일	저녁7시30분		
2월11일(토)	연중 제5주간 토요일	저녁7시30분	합 계	\$ 5,296.00
2월12일(일)	연중 제6주일	오전 9시 오전 11시	미사참례자	학생 : 18명 성인 : 165명
교무금 봉헌자	최법진(1-5)송돈희.김기환.이환(1-3)김응환.최선옥.전정옥.이미자(1-2)김현준(1-12)박원상(1) 김영숙.윤영자.이재덕.이유빈.김운태.조기은.최재진(2)			

“전례 시간의 의미 : 오늘과 주일”

오늘

살아있는 모든 것은 오늘을 살아갑니다. 무언가 오늘을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살아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이 살아 있음을 확인받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신앙인의 ‘오늘’도 단지 측정 가능한 시간적 의미의 하루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인들의 살아있음은 항상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기에 그들의 오늘은 언제나 하느님과 연관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모든 오늘은 늘 하느님께 자신을 일치시켜 나가는 과정이 됩니다.

이러한 오늘 하루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두 축이 있다면, 아침과 저녁입니다. 아침은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 (요한 1,9)이시고, “높은 곳에서” (루카 1,78) 솟아오르는 “의로움의 태양” (말라 3,20)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관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아침은 주님의 부활을 경축하며 우리 자신을 그 신비에 내어 맡기는 모습을 지니게 됩니다. 모든 오늘의 시작을 부활의 신비 속에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은 하루가 끝나고 하느님께 자신이 받은 은총에 대해 감사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특별히 최후의 만찬과 주님 십자가의 신비를 기념하게 됩니다.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봉헌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며 그 사랑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면서 작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한 동시에 미래의 부활을 상징하는 새로운 아침을 기다립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바치는 기도는 그리스도 사랑의 신비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모습이 됩니다. 해돋이에서부터 해넘이까지 스며든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부활의 신비에 나의 오늘을 맞춰가는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내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느님 뜻에 맞추는 과정이 바로 우리의 모든 ‘오늘’ 안에서 바치는 기도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의 시간이 성화됩니다. 우리의 유한한 오늘이 하느님의 영원한 오늘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오늘은 은혜로워지고, 거룩해 집니다. 이렇게 우리는 모든 ‘오늘’을 그리스도의 부활 신비 안에서 새롭게 살아갑니다.

주일

“우리는 태양의 날에 언제나 모인다. 이 날은 하느님이 어둠으로부터 질료를 끌어내어 세상을 창조하신 첫날이자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이들로부터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이다.” (유스티노, 「호교론」) 여기서 말하는 태양의 날이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일요일을 말합니다. 하지만 신앙인들은 이날을 참된 빛이요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하여 ‘주님의 날’, 즉 ‘주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신앙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전통 안에서 주일을 ‘주님 부활의 기념일’, ‘제8일’, ‘주간의 첫째 날’ 등으로 부르곤 하는데, 이러한 주일의 명칭은 각각 ‘믿음’, ‘희망’, ‘사랑’과 연관이 되기도 합니다.

첫째로, ‘주님 부활의 기념일’이라는 명칭은 ‘믿음’과 연관됩니다. 주님의 파스카 신비로부터 탄생한 교회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에 이러한 파스카 신비를 특별히 기념합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의 파스카 신비는 우리 신앙의 근본을 이룹니다. 주님 부활의 신비가 없다면, 우리 신앙도 의미를 잃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에 그 신비를 믿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제8일’이라는 명칭은 ‘희망’과 연관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한 주간을 7일로 나누는데, 이 시간 속에 존재하지 않는 제8일은 영원함을 상징하면서 종말론적 희망의 표현이 됩니다. 즉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영원한 생명을 희망하는 모습이 ‘제8일’이라는 표현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주간의 첫째 날’이라는 명칭은 ‘사랑’과 연관됩니다. 이날은 세상 창조 때 하느님께서 당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날입니다. 또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날입니다. 이러한 날에 우리는 함께 모여 하느님 사랑의 말씀을 듣고, 사랑의 성찬례를 봉헌하며 주님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특별히 주일의 은총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통해 우리의 부활을 살아갑니다.

◎오늘의 미사지향 (미사신청:박율리아.916-990-6531/박프란치스코.909-573-5322)◎

구분	지향	봉헌자	구분	지향	봉헌자
연	서정선 엘리사벳 영혼	안윤석	생	조유원 요셉 영육건강	조윤희 밀지다
연	마이클 메이오 영혼	최선옥 제노베파	생	성소후원회 모든 회원 영육건강	성소부
연	이규청 제노비아 영혼	이호영 베드로 가족	생	(생일) 서은미 안나 영육건강	성가대
연	이규청 제노비아 영혼	김경숙 로마나	생	공소부 부원들의 영육건강	피호진 아그리피나
연	김숙연 타르살라 영혼	이베드로 벨라멧다	생	(생일) 임시몬 임재형 영육건강	임그라시아
연	(2주기) 여길선 요안나 영혼	김근수 요한	생	임혜숙 그라시아 빠른 회복	이영숙 데레사
연	이강연 요셉 영혼	이미란 크라센시아	생	임혜숙 그라시아 빠른 회복	진엘리사
연	오광희 요셉 영혼	오영자 리디아	생	김정애 헬레나 건강 회복	진엘리사
연	이호선 영혼	임헌재요한가족	생	김정애 헬레나 김채홍 어거스틴 영육건강	전정옥 율리안나
생	김도철 베드로 빠른 회복	김진영 마르타			

◎공동체 소식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 요한 17:21)

1구역(FE).2구역(F0).3구역(PC).4구역(NH).5구역(GF).6구역(RC).7구역(RT).8구역(NC).9구역(EG).10구역(DW)

<기도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

1. 주님 봉헌 축일 (초 축복식)

일시: 5일(일) 미사중에 있습니다
1년동안 제대에 사용될 초를 봉헌해주시고
가정에서 사용할 초를 성물방에 신청바랍니다.

2. 본당 구역장 회의

일시: 5일(일) 교중미사 후 엘리사벳방
2023년도 신년모임을 겸한 첫 구역장 모임을
많은 관심과 참석 바랍니다.

3. 구역미사 및 구역모임 안내 (3월부터)

구역미사: 구역장회의가 열린 주일 첫 금요일
첫구역미사: 3월10일(금) 1-1구역
구역모임: 구역미사가 있는 날 진행 (원칙)
구역장은 구역미사/구역모임 일정을 2주전에
구역장 단톡방에 공지바랍니다.

4. 독서 및 신자들의 기도 (2월 담당) 안내

독서: 6구역 신자들의 기도: 10구역
구역장께서는 최소 1주전에 명단을 전례부장께
제출바랍니다.

5. 양업 토마스 공동체 (리노공소) 미사

일시: 12일(일) 성당에서 오후1시 출발
참여단체: 공소부
리노공소를 위해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6. 모임 및 활동안내

사회복지부: 5일(일) 오전8시30분 홀리스음식봉사
성 모 회 : 5일(일) 교중미사후 루가방
10 구역모임: 5일(일) 오후5시 김규봉.김희진택
1-1구역모임: 12일(일) 교중미사후 엘리사벳방
1-2구역모임: 12일(일) 교중미사후 루카방
8 구역모임 : 12일(일) 교중미사후 마테오방

7. 매일미사책 책값 인상 안내 (3월호부터)

인상금액: \$7 (부활시기는 \$9)
기존 연간구독자는 내년부터 인상됩니다.

8. 리노공소 후원, 먹거리 판매 (2월12일, 일)

메뉴: 정혜김밥팀 (우거지국+밥: \$5)
공소부 (붕어빵: \$5)

9. 주님!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강석만 요셉, 염영호 요셉 형제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0. 감사합니다

제대초봉헌: \$100 (최정신 데레사)
광고비: \$350 (최병엽공인회계사)
장례미사(염영호요셉): \$200 (최스텔라)
연령회(염영호요셉): \$200 (최스텔라)

◎ Donation Statement

2022년 텍스리턴 관련 Donation Statement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에 신청 바랍니다.

◎ 경북 영양 고춧가루 판매(공소부): \$45/1kg

<< 주일학교 >>

2023 봄학기 주일학교 개강 미사

개강미사: 5일(일) 오전9시
수업시간: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11시

2023 봄학기 주일학교 교사

유치부: 천연지 가브리엘라. 김지혜 효주아네스
초등부: 김지연 베로니카. 임규민 엘리사벳
양지연 이나시아

중고등부: 김아랑 마리아. 피효진 아그리피나

주일학교 교감: 박희현 세실리아 (916 850 5320)

주일학교는 항상 열려있습니다.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미사때 좌석배치 (적극 협조바랍니다)

어린이·학부모: 독서대 앞쪽 (성가대)
성인 : 미사해설대 앞쪽 (감실)

화답송				
	<p>울 끝 은 이 들 에 게 는 어 뎀 속 에 서 빛 이 솟 으 리 라</p>			
	전례봉사	연중 제5주일 (2/5)	연중 제6주일 (2/12)	연중 제7주일 (2/19) 사순 제1주일 (2/26)
	미사해설	박문교 / 오민정	이주연 / 김진영	김선식 / 최금주 김선영 / 김은영
	복 사	윤지현 제임스	최준우 루카	송돈희 요셉 장현철 엘리야
헌금위원	천상의모후Pr	셋별Pr.	천상의모후Pr 셋별Pr.	

(광고)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 요한 17:21

주보제작: 박봉준. 프란치스코살레시오(909-573-5322) E-Mail: bongjun5322@gmail.com

Samurai Sushi

12251 Folsom Blvd.
Rancho Cordova, CA95742
신영후(토마스)
916-353-1112
samuraisushisac.com

1.2.3 Auto Body 정비

11357 Pyrites Way
Suite B1, Rancho
Cordova CA 95670
이호영(호영베드로)
916-366-0123

FARMERS 배정순 종합보험

사업/상해/자동차/집/
건강/생명보험/연금
9545 Folsom Blvd # 1
Sacramento, CA 95827
916-362-3300 (O)
916-475-3770 (C)

최병엽공인회계사

Byungyeub Choi CPA &
Associates Inc.
9521 Folsom Blvd. suit P
Sacramento, CA 95827
(Butterfield Plaza#P)
최병엽(바오로)
916-363-2345

에어컨 수리

Air Conditioner
Service & Repair

배용환(울리아노)
916-548-3278
916-362-3300

클라라 가정양로원 (Clara Care Home)

4665 Freeway Cir.
Sacramento, CA 95841
김재열(스테파노)
김옥기(클라라)
530-771-7715
530-204-8878

Angel Garden Care Home

9873 Traveler Court
Elk Grove, CA 95624
조영숙(도미니카)
530-886-9529
ycho11281128@gmail.com

장 의사 W.F.Gormley & Sons Funeral Home

Family Owned Since 1897
Preneed Services
Available
916-443-6513
www.gormleyandsons.com
모든 장례예절 성실히 봉사

전주곰탕 & BBQ

9545 La Rivera Dr.
Sacramento, CA 95826
(구 아시아마켓)
임복순(골롬바)
916-382-9699 (C)

서은미 부동산



950 Iron Point Rd., #170
Folsom, CA 95630
서은미(안나)
916-600-1936

메리서 부동산·용자·재정서비스

- 주택/상가/상업/부동산관리 및 자문
- 주택용자/SBA/Commercial/Land
- 은퇴-자산-재무설계/재산관리

서주연(마리아)
916-271-3671 · maryseo@gmail.com
CALIFORNIA . GEORGIA . HAWAII



#1 KOREAN CHICKEN
모임/생일 Catering 주문 환영



916-840-5535
조현화(헬레나) 916-728-8585
KP market, #411

약사에게
물어보세요
Aeyon Lee RPh
(이애연 플로렌시아)

개인면담(사전예약필요)
교중미사후
친교실(격주)
916-276-1834
aeyon7511@gmail.com

양업토마스공동체 (리노공소) 후원

고추장. 된장. 도토리 국수. 참기름. 고춧가루 판매
리노공소 기금마련을 위한 수익사업입니다.
공소부장(916-591-0179)

교무금 봉헌 은행계좌 안내

입금은행: Wells Fargo
은행주소: 9500 Micron Ave Suite 130
예금주: Pastor of St Jeong-Hae Elizabeth
계좌번호(Account#): 360 184 1897

교무금 등 각종 봉헌은 주님께 받은 은총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며, 모든 신자의 의무사항입니다.